



화강암의 형성

알래스카를 제외하고 미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캘리포니아 주에 있다. 4421m에 이르는 휘트니 산(Mt. Whitney)이다. 이 산을 포함하며 남북으로 600km의 길이로 이어지는 산맥이 시에라 네바다(Sierra Nevada)이다. 창조과학탐사 중에 이곳에서 빙하시대에 대하여 다룬다. 요세미티와 세코이아 국립공원도 이 산맥에 위치한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은 주로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대륙마다 화강암은 수십~수백 평방 킬로미터로 발견되며, 한국에서도 화강암은 가장 쉽게 관찰되는 암석 중에 하나다.

일반적으로 화강암은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오랜 세월을 걸쳐 냉각되며 형성된 것이라고 여긴다. 이와 같이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된 암석을 심성암이라고 하는데 화강암도 이들 중에 하나로 분류된다. 그러나 용암이 분출되어 지표에서 굳는 현무암 같은 화산암과는 달리 오늘날 화강암이 형성되는 것은 거의 관찰된 적이 없다. 또한 화강

얇은 고온 고압 조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암석 형성에 대한 실험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화강암 형성에 대한 논의는 거의 한 세기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화성암(마그마에 의해서 형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암석)에 대한 책에는 ‘화강암 문제(granite problem)’라는 단원이 따로 있을 만큼 각 이론들마다 만족스럽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화강암 형성에 대한 궁금증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1) 화강암을 만드는 마그마가 얼마나 빨리 상승했는가?
- 2) 마그마가 어떤 과정으로 지금의 위치에 자리 잡았는가?
- 3) 마그마가 어떤 과정으로 얼마나 빨리 냉각되었는가?



위에 나열된 화강암 형성에 대하여는 거대한 마그마가 지하에서 천천히 상승하여 수백만 년의 오랜 세월 동안 냉각되어 지금의 화강암이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지질학자들의 전통적인 생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런 기존의 자세는 지질학자들에게 계속해서 의심스럽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오히려 “빠르고 역동적인 과정”에 의해 형성 가능하다는 이론이 대두되고 있다.

1) 마그마 상승

최근 마그마의 상승에 대한 실험은 마그마의 점성과 통로의 너비에 따라서 아주 빠르게 상승하는데 어떤 경우는 기존의 생각보다 백만 배가 빠르다는 것이 실험에 의한 결론이었다. 단지 이 실험뿐 아니라 최근 이루어진 실험들은 마그마가 상승해서 현재의 자리를 잡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계산에 의하면 마그마는 하루에 800m 이상을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다. 기존에 수백만 년에 걸쳐 상승했다는 생각에서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2) 마그마의 자리잡음

마그마가 상승하는 것과 함께 지금의 자리, 곧 퇴적암 속에 어떻게 자리를 잡게 되었을까 하는 추측은 화강암 형성에 아주 논란거리였다. 그 가운데 가장 어려운 문제로 지적되었던 것이 “공간 문제(space problem)”이었다. 즉 수십만 평방 킬로미터의 부피를 가진 마그마가 기존 퇴적암 속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려

면 퇴적암 속에 엄청난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공간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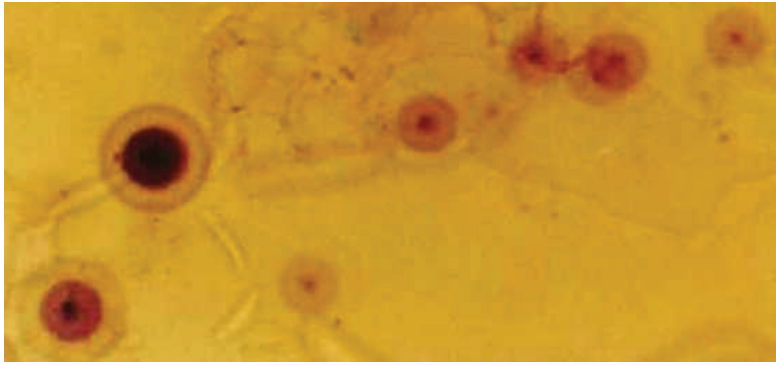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 현장에서의 연구는 마그마가 상승하며 여러 작은 판상의 형태로 기존 퇴적 지층 사이를 메꾸며 또 다른 마그마가 그 사이 공간을 또 뚫고 들어와 메꾸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마그마가 자리를 잡았다는 모델에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즉 기존에 거대한 마그마가 천천히 상승하여 자리 잡은 것이 아닌, 여러 작은 부피의 마그마가 기존 균열된 틈새에 들어와서 메꾸는 식의 모델인 것이다. 이런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됨으로 인해 마치 거대한 화강암체를 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최근의 여러 모델들은 거대한 화강암체가 형성된 데는 수백 년 안에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야외 조사 상에서 화강암 사이 사이에 퇴적암들이 끼어서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이 모델이 상당히 설득력 있음을 보여준다.

3) 마그마의 냉각 과정과 속도

화강암은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결정들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큰 결정은 오랜 세월에 걸쳐야 형성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모든 고등학교 교과서, 심지어 대학교과서에서도 이와 같이 쓰여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바른 개념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실험실에서 짧은 시간에 이와 같은 큰 결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 시간 안에 5mm의 장석 결정을 만들 수 있다. 즉 큰 결정이 형성되는 것은 시간보다는 물의 함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데, 특별히 물의 함량이 높을수록 마그마의 냉각 속도는 훨씬 빨라진다. 실제로 모든 화강암은 균열 사이에 열수(熱水, hydrothermal)에 의해 형성된 결정들을 보여주는데, 이는 마그마에 다량의 물이 함유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강암의 큰 결정은 오랜 시간의 냉각속도가 필요치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의 냉각과정은 마그마의 전도(conduction)만 고려했으나, 실제로는 마그마가 고온의 액체이기 때문에 대류(convection)를 고려해야 한다. 이럴 경우 냉각 속도는 아주 빨라진다. 앞에 마그마가 자리잡는 과정에서 언급했듯이 거대한 마그마가 아닌 작은 마그마가 균열을 통해 올라왔다고 하면 그 냉각 시간은 훨씬 짧아진다.

화강암이 빠르게 냉각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증거는 화강암에서 관찰되는 폴로늄 방사능혼이다. 폴로늄은 방사성 원소로서, 붕괴를 할 때 방출되는 알파입자가 광물 결정에 동심원의 흔적을 남겨놓는다. 이 폴로늄은 그 반감기가 수 일에서 수 초까지 짧은 것도 있다. 그러나 만약 마그마가 느린 속도로 냉각되었다면 폴로늄은 짧은 반감기로 인해 결정 형성 이전에 모두 소멸되어야 한



방사능원

다. 왜냐하면 액체에는 그 흔적을 남겨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화강암들은 폴로늄 방사능 흔을 보여준다. 이는 폴로늄이 모두 붕괴되기 이전에 마그마가 모두 식고 결정들이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즉 마그마의 빠른 형성 없이는 그 흔적이 화강암에 남을 수 없다.

이와 같이 화강암에 대하여 수백만 년 걸렸다는 생각은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음에도 여전히 중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에서 화강암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었을 것으로 가르친다. 그리고 이로 인해 깊이 없는 지식만 갖고 창조과학자들의 사고를 쉽게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화강암이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되었을 것이란 추측은 대부분이 실험에 의한 것이 아닌 지구가 수십억 년 되었다는 동일과정설적 패러다임의 산물이다. 오히려 화강암의 빠른 형성은 창조와 홍수 심판의 틀에서 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위의 글은 아래 논문에서 발췌하여 요약한 것임. 자세한 문헌은 아래 논문을 참고바람

-Snelling, Andrew A., Catastrophic Granite Formation: Rapid Melting of Source Rocks, and Rapid Magma Intrusion and Cooling, Answers Research Journal, 1-25, February 6, 2008.

-Snelling, Andrew A., "Rapid" Granite Formation? Journal of Creation 10, no 2: 175-177, August 1, 1996

-Snelling, Andrew A. and John Woodmorappe, Rapid Rocks: Granites ... They Didn't Need Millions of Years of Cooling, Journal of Creation, 21, no 1: 42-44., December 1,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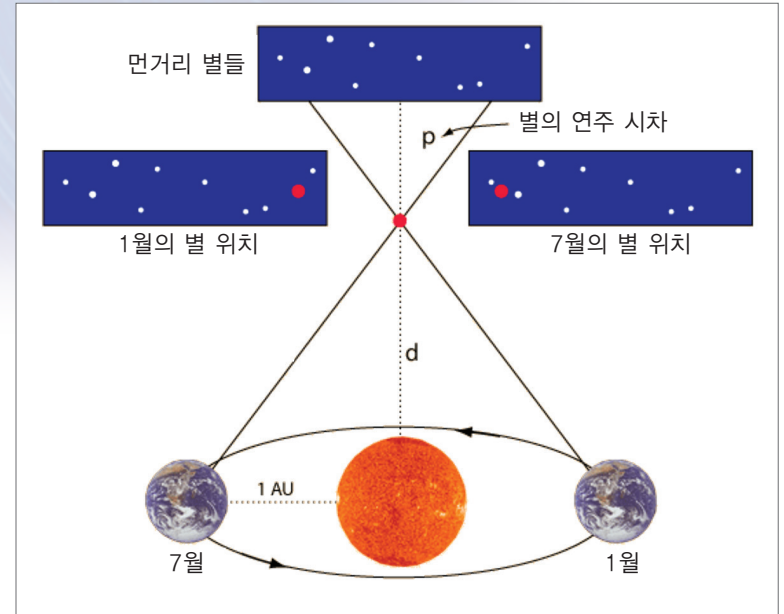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별

별들의 거리 측정-검증 가능한가?

실제로 별들의 거리를 어떻게 결정할까? 또 결정된 거리는 얼마나 정확한 것일까? 그리고 검증은 가능한가? 여기서 별들의 거리를 결정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천문학자들은 별들의 거리를 추정하는데 시차(Parallax)방법을 사용한다. 시차라는 것은 소위 겉보기 변위(Shift)를 말하는데 한 물체를 관측할 때 두 개의 서로 다른 조준선(Line of Sight)이 교차하면서 배후 면에 만드는 거리이다.



지구가 태양의 궤도를 선회함에 따라서 가까운 거리의 별들은 보다 먼 별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위치가 더 크게 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과 같이 1월에 하나의 별을 관측하고 6개월 후 7월에 동일한 그 별을 관측하면 원거리 배경에 있는 별들에 대하여 위치가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그 움직인 정도를 각도로 표시한 것이 그 별의 '연주시차(annual parallax)'이다.^[1]

따라서 지구로부터 태양의 거리(AU)를 알고 연주시차 각(p)을 알면 삼각함수

로 그 별의 거리(d)를 계산할 수 있다.

$$d = 206,265 \text{ AU}/p$$

여기서 시차각 (p)의 단위는 아크초(arc seconds ")이며 1도를 3600으로 나눈 매우 작은 각도(0.0002777")이다. 이는 12.8km (8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6.2cm 직경의 테니스 볼이 이루는 각과 같다. 거리(d)의 단위 pc(parsec)는 206,265 AU, 즉 3.26광년(단위 광년은 빛이 진공에서 일년 동안 달리는 거리)이다. 따라서 파섹(pc) 단위로 하나의 별의 거리(d)는 다음의 간단한 식으로 결정될 수 있다.

$$d \text{ (pc)} = 1/p \text{ (")}$$

먼저 특정한 별에 대하여 연주시차(p)를 관측하여 시차각을 결정하고 위의 수식을 사용하여 그 별의 거리를 계산한다. 이것이 바로 항성연주시차 방법이다. 여기서 연주시차(p)가 크면 지구로부터 가깝고 작으면 반대로 지구로부터 더 먼 거리임을 나타낸다. 이 방법은 매우 먼 거리의 별들은 시차각이 너무 작아서 적용이 불가하다. 따라서 이 시차측정법은 지구로부터 근거리 별들의 거리를 추정하는데만 이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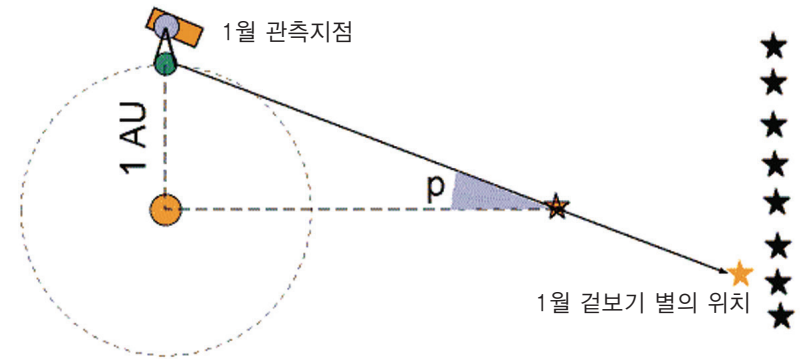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알파 센토리 별(Proxima Alpha Centauri)이 가장 큰 연주시차를 보여 주는데, 그 값이 0.76" (0.000211° 또는 1.32pc = 4.26광년)이다. 이는 5300m 떨어진 곳에 직경 2cm 구슬이 이루는 각도와 같다.

별들의 거리를 추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별빛의 밝기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보통 600광년 이상의 먼 별들의 거리를 추정하는데 사용된다. 하나의 특정한 별의 밝기(Brightness)를 측정(Magnitude scale)하고 그 밝기를 비교함으로써 그 별의 거리를 결정한다.^[2]

1989년 유럽우주연맹(ESA)은 HIPPARCOS(High Precision Parallax Collecting Satellite) 위성으로 보다 정확한 시차를 구하고자 하였다. 지표 대기의 영향을 피하여 지구 상공을 선회하는 이 위성으로 1993년까지 과거 어느 때 보다 더욱 많은 별들에 대하여 정확한 시차를 구하였다(Hipparcos Catalogue 참조).^[3] 하지만 별들의 거리를 결정하는 원리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지상에서 별들의 거리를 추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 모두가 근본적으로 빛을 대상으로 한다. 전적으로 빛에 의존하는 것이다. 빛은 진공에서 초속 약 30만km를 진행하지만 오늘날 과학자들은 빛의 속도가 통과하는 영역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별의 거리를 추정하는 시차방법에서는 빛의 힘이나 에너지의 손실



등이 없다고 가정해야하며 또 계산이 적용되는 공간이 삼각함수가 적용될 수 있는 기하공간(Euclid Space)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만일 빛이 통과하는 공간이 삼각함수를 적용할 수 없는 타원우주(Elliptical) 또는 쌍곡우주(Hyperbolic)라면 이야기는 모두 달라진다.^[4]

천문학자들은 지금까지 연주시차 방법으로 600광년까지 약 12만개 별들의 거리를 추정해 왔다. 그들은 오늘날 시차각 측정의 오차 범위를 0.001" (0.00000027778°)로 말하고, 그 정확도에 대하여 약 400개의 근거리 별들의 거리에 대하여 1%, 그리고 약 7000개 별들의 거리는 5%의 오차 범위로 주장한다. 물론 측정장치의 정밀도가 높아지고 계산기의 오차가 줄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정확성이 높아졌어도 그 거리들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검증할 다른 대안이 없다. 가장 가깝다는 알파 센토리 별까지 4.26광년이지만 이를 검증할 다른 기술이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계산된 별들의 거리에 대한 정확성이 어떻든 별들은 지구로부터 매우 먼 거리에 있다. 저절로 우주가 생겼다면... 진화가 사실이라면... 왜 수없이 많은 별들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까? 그럴 필요가 없을 텐데..... 오직 성경만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가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시 19:1)”고 그 이유를 말해 주고 있다.

- [1] Palen, S., Theory and Problems of Astronomy, Schaum's Outline Series, McGraw-Hill, 2002.
- [2] Ridpath, I., A Dictionary of Astronomy,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3] Perryman, M.A.C., et al, The HIPPARCOS Catalogue, Astronomy & Astrophysics 323: L49-L52, 1999.
- [4] NASA, Shape of the Universe, WMAP Web: http://map.gsfc.nasa.gov/universe/uni_shape.html.



이동용 박사
항공우주공학

안산동산교회

지난 5월 18-24일 안산동산교회(담임목사 김성겸)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이 열 번째 참가입니다. 창탐 내내 성경과 진화는 단지 과학만의 문제를 넘어 자신의 신앙 유지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영원한 삶(eternal life)에 직결된 문제임을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샌디에고에 위치한 창조과학박물관은 창조과학탐사 전체 내용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지난 5월 25일 - 6월 1일, 8일 간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창조과학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이 열두 번째입니다. 창탐 동안에 성경의 과학적 증거뿐 아니라 한국 교계에 대두되는 이슈인 타협이론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대가 한마디로 '진화론 세대'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



안산동산교회



두란노 바이블칼리지

습니다. 이에 따라서 창조과학이 현 세대를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결코 뺄 수 없는 도구라는 점도 공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다음 세대를 창탐에 보내는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세미나 계획도 세웠습니다.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는 한 해에 봄, 가을 두 번씩 창조과학탐사를 공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창탐은 10월 12-19일 입니다. 한국에서 창조과학탐사를 공개로 모집하는 곳은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뿐입니다. 그동안 창탐을 모집해주신 바이블 칼리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모집에는 반월 중앙교회(담임목사 박종배)에서 가장 많은 분들(33명)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창탐에는 기존 경유지에 더하여 운석구(Meteor Crater), 규화목 공원, 페인트드 사막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온누리 해외 비전교회 세미나

지난 5월 17일 열반인 온누리교회에서 온누리 해외 비전교회 목회자 가족 초청 세미나

가 있었습니다. 이재만 회장은 “타협의 거센 바람”이란 제목으로 세미나를 인도하였습니다. 제목이 지난 3월 말 출판된 책과 동일 하듯이, 최근 이슈가 되는 타협이론의 내용과 과학적 성경적 교회적 문제점을 다루는 주제였습니다. 또한, 본 세미나는 온누리교회 자체로 창조과학탐사를 진행하기 앞서 이루어진 것으로, 창탐 인도는 최우성, 김낙경 박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두란노 바이블칼리지

창조과학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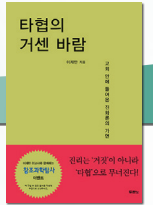
노휘성 강사와 빌 호쉬(Bill Hoesch) 강사는 지난 5월 26일 또감사교회(담임목사 최경욱)에서 ‘창세기1장과 종의 기원’을 주제로 세미나를 인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는 지난 해에 이어 중학교 입학 앞둔 5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진화론만 배우는 자녀들에게 진화론의 과학적·성경적 문제점들을 가르쳐주고, 성경적인 창조관을 심어주는 졸업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해 각각 세미나가 준비되었으며,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셨습니다.

지난 6월 1일 노휘성 강사는 헐리웃효순장로교회(담임목사 김동원)에서 엘에이 인근 지역 목회자들을 위해 마련된 창조과학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인류의 기원’과 ‘종의 기원’을 주제로 기원에 관한 성경적 관점과 과학적 이해를 위해 집중 세미나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여하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했던 질문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시종일관 진지하게 경청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창조과학선교회

www.HisArk.com / hisark@gmail.com

〈타협의 거센 바람〉을 읽고



신학대학교에 3학년으로 입학하여, 1학기였지만 자유주의 신학이 무엇인지 그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3년 전 훈련받을 때,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적나라하게 눈 앞에서 이루어졌다. 사실보다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보다 위에 자신의 해석을 두었다. 해석없이 계시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일부 신학자들은 성경을 말하지만 성경의 조명하심과 일하심은 부정한다. 그들과 대화하는 것은 끝이 없는 일어서 지칠 때가 많았다.



언제나 좁은 길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도 항상 마지막에 걸리는 것이 바로 창조인 것 같다. 창조를 성경 그대로 믿는 것은 진화론 시대에서 가장 믿음을 필요로 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사실 전에는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성경을 그대로 믿는 줄 알았다. 내 주위에 사람들이 언제나 그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 있었는데, 그 이론들은 언제나 우종학 교수와 다른 타협이론들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말 그대로 타협의 거센 바람이 우리 교회를 강타하고 있는 것 같았고, 성경에 제대로 뿌리를 박지 않고, 반석 위에 짓지 않은 교회는 금세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책의 내용이 명료하고, 강하게 느껴졌다. 이재만 선교사님의 마음은 깊이 나

의 마음으로 다가왔다. 유신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과학, 즉 진화론과의 타협이 왜 틀렸는지 세 가지 본질적인 배경으로 설명해주었다.

첫 번째는 계몽주의 시대에 이성의 역할이 중요해진 내용이다. 나는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단어로 표현해보고자 한다. 종교개혁 이전부터 위클리프 등 많은 신학자들은 당시 성경 해석에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서 일반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도록 노력했다. 종교개혁 이후부터는 성경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 각자에게도 깨달음을 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교회의 세속에 물든 전통 말고, 정말 성령님이 원하시는 성경대로의 삶을 살도록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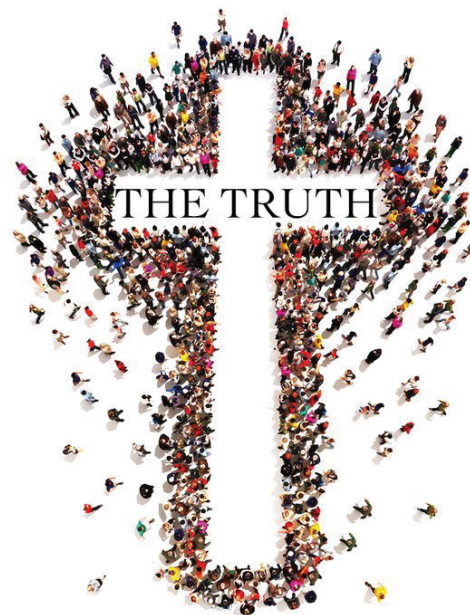
그러나 곧 본질과는 다르게 성경을 스스로 해석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존 재보다 자신의 이성을 앞세운 데카르트의 철학부터 스피노자로 이어지며 빠르게 확산되었고, 자연세계를 보는 새로운 안목이 생기기 시작했다. 곧바로 이성은 성경 위에 놓였다. 결국 당시 교회의 잘못들, 즉 소의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이는 모양이 되고 말았다. 신학자들은 성경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기 시작했고, 하나의 텍스트로 성경을 다루게 되었다.

두 번째는 동일과정설이 큰 축을 형성했다. 이전까지는 왜 하나님께서 한 순간에 만드시기 않았을까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경험으로 추론했을 때, 오랜 시간동안 창조한 것이 문제가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옮겨간 것 같다. 라이엘의 '현재는 과거를 알 수 있는 열쇠'라는 말은 과학적 경험지식으로 추론한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되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성과 경험의 추론은 더는 격변적이고, 초자연적인 성경의 내용을 신뢰하지 않게 만들었다. 하나의 큰 패러다임으로 증인이 필요없는 경험적 학문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생물들은 어떻게 다양해졌을까'라는 생각을 찰스 다윈은 오랜 지구 패러다임에 맞춰 발표를 했다. 그래서 현대 진화론을 맞춰가는 과학자들은 좀처럼 완성되지 않는 진화론을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서 완성을 시켜 놓고,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에 우종학 교수가 학교에 강의하기 위해 왔다. 종교개혁과 과학이라는 주제였다. 그의 말을 통해서 느낀 것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어떠함이나 창조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논리로 단단해지는 것이었다. 내가 만일 이제만 선교사님보다 그를 먼저 만났다면 그의 말에서 모순을 찾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강의를 듣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여러 질문들을 적었지만, 시간이 없다고 해서 빠르게 두 가지 질문만 할 수 있었다. 그는 '아담 이전의 죽음'에 대한 질문에 무조건 죽음이 죄 이전에 있었다고 답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논리를 완성시키기 위해 복음은 무어라고

I am the Way



and the Life

JOHN 14:6

이는 불쌍한 감정과 눈물에 진정한 사랑이 가리워지기도 한다. 진정한 사랑은 거짓된 길, 자신이 만든 길로 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타이르고 때로는 혼내고, 치기도 하면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교회와 교인들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도 바울은 몇 명의 증인들로도 되지 않는 자는 쫓아내라고 하기도 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맞고, 편안한 방식을 취한다. 지금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이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도와야 한다.

성경을 그대로 알 수 없게 만들어가는 세상에서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전하고 싸우는 일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 나에게 해주신 많은 말씀 속에서 "말씀에 대한 순결"이 깊이 남아있다. 더욱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나의 생각으로 갈 수 없는 그 길은 언제나 좁은 길이다.

강지훈 / ITCM v

말하는지 듣지 않는 것 같았다.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듯 복음과 처음부터 끝까지 상반되어 있다. 그의 따름 열매는 다 말할 수 없이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교회들과 사역자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진짜를 찾고 있는가, 진짜를 만들고 있는가? 구약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치시고, 썩매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 구약은 언제나 떠나간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메시지인 것 같다. 온 만물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없이는 진짜 자유와 만족을 누릴 수 없고, 진정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랑이라는 말로 다 포용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으며, 눈에 보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세상을 좀 더 볼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더욱 기도하고 공부해서 교회가 더욱 견고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되도록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강은영

무너진 청소년, 청년들, 다음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국에 가서도 아름답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쓰임 받고 싶은 기대와 소망을 합니다. -권영주

칠십이 넘은 나이에 정말 불가사이라고도 창조과학탐사 과정에 참여 하게 된 것을 한 마디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입니다. 이제 남은 여생에 이 귀한 사역에 조그마한 일조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가능 한부터... -조동국장르



성경에 대한 새로운 깨우침을 주시고 확신을 갖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젊은 세대에게 꼭 필요함을 알게 되고 자녀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신 문희곤목사님, 김동호목사님 부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유영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들을 넘어뜨리는 진화론의 주장을 물리치고, 내 안에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자신감과 의지를 회복하고 갑니다. 수고하신 이재만선교사님과 창조과학선교회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송경섭



성경을 읽으면서도 '무조건' 믿는다 하지만 '의심'도 떨칠 수 없는 이중성에 힘들었는데 눈으로 성경을 본 것 같아 앞으로 말씀 듣고 읽을 때 더 순전히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것은 '성경'임을 확신하며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이선영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이 탐사 프로그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을지 미지수이지만 한국에 가서 열심히 전파하려합니다. 이 글을 보신 분들은 무조건 신청하세요! -김은영

성경 통독을 완수하지 못하고 6개월 전부터 시작한 노트성경공부를 하는 가운데 참가한 창조과학탐사는 성경 알기, 하나님 알기, 또 나의 정체성 알기에 정말 좋은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창세기를 중심으로 한 성경의 기초 공부는 남은 삶의 신앙 생활에 든든한 기초를 다지게 해주었습니다. -신성호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몇 가지를 얻어 갑니다. 우선 창조에 대한 확신입니다. 귀로 듣고 성경으로만 읽어 아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간 받은 믿고 받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래서 회개 했습니다. -무명

성경에서는 우리가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연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이 제게 가장 큰 축복이자 기쁨입니다. -송재성



2017 ACT Schedule

7/3-10	창조과학탐사 (과천약수교회), 이재만
7/9-30	창조과학세미나 (LA사랑의교회 중등부), 노회성
7/10-13	창조과학탐사 (EM모집), Bill Hoesch, 김선욱
7/13-19	창조과학탐사 (한동대학교수 + 오픈), 이재만
7/20-23	창조과학탐사 (안산동산고등학교), 이재만
7/24-28	창조과학탐사 (선한목자젊은이교회), 이재만
7/30	창조과학세미나 (Agape International Baptist Church, VA), 김선욱
8/1-5	창조과학탐사 (더사랑교회), 이재만
8/9-12	창조과학탐사 (포모나인랜드교회), 이재만
8/14-20	창조과학탐사 (생터성경사역원), 이재만
8/24-30	창조과학탐사 (부산호산나교회), 김낙경
9/12-15	창조과학탐사 (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 이재만
9/18-21	창조과학탐사 (뉴저지초대교회+오픈), 이재만
9/23	창조과학세미나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9/25-28	창조과학탐사 (앵커리지온누리교회),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